

# 한국 청년세대의 정치적 동원과 공정 담론의 재구성\*

## -‘이대남’ 현상을 중심으로-

김현주\*\*

- 
- I. 서론
  - II. ‘이대남’의 대두와 피해자 서사
  - III. ‘이대남’ 담론의 효과와 정치적 동원
  - IV. 한국 청년세대의 현실과 공정 담론의 재구성
  - V. 결론
- 

### 【국문초록】

이 글은 2019년 이후 정치적 주체로 떠오른 ‘이대남’ 현상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여, ‘이대남’ 현상이 한국사회의 현실과 어떻게 접목하는지 진단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먼저 ‘이대남’이 형성되어 온 맥락에 대해 분석했다. ‘이대남 현상’은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의 공정성 문제 및 ‘넷페미니즘’에 대한 반감과 성별할당제에 대한 비판 등이 맞물려서 형성되었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언론 및 보수정치인들은 이런 ‘이대남’의 목소리에 적극 호응했다.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세계적 흐름과 유리되는 반인권적 공약이었고, 이대남이 강조하는 ‘공정’에는 불평등에 대한 개선의지가 담겨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도 뚜렷하다고 하겠다.

여기서 ‘이대남’의 특징으로 열거한 공정과 능력주의 등의 가치는 다수의 한국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대남’ 현상은 한국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청년세대, 이대남, 페미니즘, 공정, 능력주의

---

\* 이 글은 2024년 2월 27일에 일본 오키나와국제대학에서 열린 제23회 한일민중사 공동워크숍 <불평등과 폭력의 역사, 그리고 연대의 모색>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그리고 발표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 반원들과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조교수.

## I. 서론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이대남이라는 유령이.  
대한민국의 모든 구태세력들이 이 유령을 사냥하려고 동맹을 맺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대한민국 사회의 역사는 적폐세력의 역사다.  
지배 계급들로 하여금 윤석열 앞에서 별별 떨게 하라!  
이대남이 혁명에서 잃을 것이라고는 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공정과 상식이로다.  
한국의 이대남이여, 단결하라!1)

이 글은 젠더갈등이 극단화된 지난 2022년 2월에 20대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마이너갤러리에 게시되었다. 맑스의 「공산당선언」을 변주한 저 선언문은 20대 남성을 ‘유령’에 비유했음은 물론, 19세기 공산당과 20대 남성 즉 ‘이대남’<sup>2)</sup>을 동렬에 놓으며 탄압받는 주체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징후적이다. 여기서 ‘징후’는 이 선언 전후의 정세에서 ‘이대남’이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글은 2019년 이후 정치적 주체로 떠오른 ‘이대남’ 현상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여, ‘이대남’ 현상이 한국사회의 현실과 어떻게 접목하는지 진단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20대 대통령 윤석열과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뒤엎는 전략으로 권력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주요 전략이 윤석열과 이준석이 합작한 ‘세대포위론(청년세대와 노년세대 연합으로 중년 세대를 포위하는 전략)’이었고, 그 핵심에는 ‘이대남’이 존재했다.

이런 중요성 때문인지 ‘이대남’과 ‘이대남 현상’에 대해서는 언론학, 사회학, 정치학적 측면에서 연구가 산출되었다. 2021년 재보선과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이대남’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sup>3)</sup>, 언론의 보도 프레임에 주목한 연구<sup>4)</sup>, ‘이대남’의 고립성과 정치성에 주목한 연구<sup>5)</sup>, ‘이대남’ 현상을 포퓰리즘과 연결한 연구<sup>6)</sup> 등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비평가로 활동하며 젠더 이슈에 대해 ‘이대남’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이선옥은 이대남을 대변하는 목적으로 소책자를 발매하기도 했다.<sup>7)</sup>

1) 디시인사이드 마이너갤러리/새로운보수당 갤러리/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2022년 2월 17일 게시물.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newconservativeparty&no=2436884>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2) ‘이대남’은 원래 ‘20대 남성’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90년대 이후에 출생한 2030 남성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 사용하는 ‘이대남’은 ‘청년남성’과 동의어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이 용어가 언론에서 처음 사용한 것은 2019년 1월 시점인데 자세한 내용은 1장에서 후술하겠다.

3) 김은이·송민호, 2022.

4) 오다슬·유홍식, 2023.

5) 여성민, 2022.

6) 김내훈, 2021.

상술한 연구들을 통해 ‘이대남’ 현상의 실체와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 이선옥의 사례에서 보듯 ‘이대남’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그들도 생겨났다. 그리고 ‘이대남’의 안티페미니즘적 성향, 공정에 대한 강한 집착, 위선에 대한 거부감 등도 분석되었다. 이 글에서도 이러한 지적들에 대부분 동의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분석들과 구별된다. 먼저 ‘이대남’이 형성되어 온 맥락과 ‘이대남’의 피해자 서사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분석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이대남’ 현상을 추동하고 정치적 자원으로 삼아 온 정치권, 특히 이준석과 이대남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세대의 공정 담론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능력주의라는 키워드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주요 자료는 <디시인사이드>, <에캠코리아> 등 20대 남성들이 주로 활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이준석과 윤석열 등 20대 남성이 지지했던 주요 정치인의 SNS(페이스북) 게시물 및 인터뷰 내용, ‘이대남’ 담론을 유포했던 신문 기사들을 활용했다. 그리고 ‘이대남’ 주제어 분석 방법은 코퍼스(말뭉치) 연관어 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 II. ‘이대남’의 대두와 피해자 서사

### 1. ‘이대남’의 기원

‘이대남’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역시 페미니즘이다. 여기서 페미니즘이란 더 정확히 얘기하면 2015년 전후 즈음 불어닥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형성된 일련의 ‘넷페미니즘’<sup>8)</sup>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 넷페미니즘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메갈리아의 탄생이다. 메갈리아(Megalia)는 2015년에 개설되어 2017년 5월 17일에 폐쇄된 인터넷 커뮤니티이다.<sup>9)</sup> 메갈리아라는 이름은 메르스 갤러리

7) 이선옥, 2022.

8) 메갈리아, 위마드로 시작되어 2030 여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전반에 흐르고 있는 여성주의 흐름을 이 글에서는 ‘넷페미니즘’으로 정리하였다.

9) 이 장의 메갈리아에 관한 기본 정보는 「나무위키」 메갈리아 항목을 참조했다.

(<https://namu.wiki/w/%EB%A9%94%EA%B0%88%EB%A6%AC%EC%95%84>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나무위키 사이트를 참조한 것에 대해 심사위원의 비판적 지적이 있었다. 나무위키의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점, 메갈리아 사이트에 대한 원본 분석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사위원의 지적은 정당하다. 다만 메갈리아 사이트가 2017년에 폐쇄되었으므로 현재로선 원본을 분석할 수가 없고, 나무위키가 산재된 정보들을 취합했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기본 정보만을 활용했음을 밝힌다. 그리고 나무위키 관련 정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저술도 참고했다. 박가분은 『혐오의 미러링』(박가분, 『혐오의 미러링』, 바다출판사, 2016)에서 메갈리아 현상과 메갈리아의 미러링 전략은 가부장제에 저항한 대항 전략이 아니라 일베식의 혐오 담론의 확산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이 글에서는 메갈리아의 탄생 또한 ‘남연겔(남자연예인 갤러리)’에서 남성 비하 문화를 주도하던 그룹들이 기반을 닦았으며, 반가부장주의 전략과는 무관하다고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박가분의 글과 입론을 달리하지만 메갈리아 탄생에 대한 정보를

(2015년 메르스 예방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갤러리)와 《이갈리아의 딸들》<sup>10)</sup>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가상의 국가 이갈리아의 합성어다. 이 명칭에 대해서 나무위키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홍콩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탈출하다가 연행된 메르스 의심 환자 여성 2명의 사진이 웹상에 돌아다닐 때, 메르스 갤러리를 비롯해 남초 사이트에서 전반적으로 당초 이 여성들이 한국 여성일 것이라 추측해 소위 김치녀를 운운하며 깔깔거리는 분위기와 또 의사소통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로 격리를 거부하던 여성들을 향해 쏟아지던 비난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의 자초지종이 드러나자 그 반발로 여초 커뮤니티 유저들과 여성 갤러들의 대대적인 어그로를 끌어 메르스 갤러리에 남성을 비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김치남거리면서 욕하기 시작하자 김치남이 금지어가 되자, “그동안 김치녀는 표현의 자유라는 구실로 금지어로 지정하지 않았으면서 남자를 욕하기 시작하니 김치녀와 김치남이 금지어가 되었다”며 반발한 이후 메갈리아 사이트 개설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1)</sup>

이렇게 탄생한 메갈리아는 남성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으로 결집했다. 그 공격의 방식은 미러링 즉 기존의 여성 비하 용어에 대한 반사행위였다. 예컨대 ‘니애미’에 대한 미러링은 ‘느개비’, ‘삼일한(여성은 삼일에 한 번씩 맞아야한다)’의 미러링은 ‘숨쉴한(숨쉴 때마다 한 번씩 맞아야한다)’, 된장녀의 미러링 ‘강된장남(여성을 비하하는 된장녀에 맞선 표현인 된장남의 진화형)’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미러링 전략은 다수 여성들의 지지를 얻었고 페미니스트 장관, 정치인 등도 메갈리아의 노선을 지지했다.<sup>12)</sup> 그리고 이러한 미러링 전략은 2030 여성 커뮤니티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한국 사회 페미니즘 물결을 주도했다.

사실 미러링 전략의 사회적 확산은 소수자이자 피해자인 여성이 가부장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성애자 남성을 조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 공격이 게이 등 다른 소수자에게 향하면서 메갈리아 내부의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등장했다. 메갈리아 내부에서 게이 비하 및 아웃팅 시도 사건이 등장했고 이에 대한 대처를 둘러싸고 내부 여론이 극과 극으로 나뉘었던 것이다. 이에 메갈리아 운영자는 성소수자 비하 용어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 금지 조치를 반대하는 회원들이 운영진을 게이라고 비방하며 탈퇴했다. 결국 2015년 12월 9일에 운영진은 성소수자 비하 세력과 결별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으나, 이 공지는 비추 300개 이상을

---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했다.

10) 고전적인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서로 뒤바뀐 세계를 가정하고 쓴 소설이다.

11) 나무위키/메갈리아/5. 탄생배경 5.1 메갈리아 측의 주장.

(<https://namu.wiki/w/%EB%A9%94%EA%B0%88%EB%A6%AC%EC%95%84>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12) 예컨대 문재인 정부 당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메갈리아가 미러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소라넷이 폐지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러링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2018년 미러링과 페미니즘은 무엇을 이뤘나」, 『동아일보』 2018년 12월 29일.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81229/93485862/1>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받으며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이후 메갈리아 탈퇴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메갈리아를 탈퇴한 이들이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가 바로 위마드(WOMAD)였다. 개설 당시 인원은 10000 명을 넘었다고 한다. 위마드는 ‘성기 근본주의’ 적 입장에서 성소수자 비하와 혐오에 거리낌 없었고, 남성 성기 절단 사진, 남성 영아 살해 사진 등을 공유했다. 그리고 고 노회찬, 노무현 등 진보정치인 역시 남성이라는 이유로 그 죽음을 조롱했다. 그리고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햇님’이라고 찬양했다. 미러링과 무관한 이런 무차별 ‘난반사’는 결국 고립을 자초했다. 하지만 청년 남성들에게 메갈리아와 위마드의 분화는 애당초 관심사항이 아니었고 실제로 초기 메갈리아, 위마드에서 쓰던 용어(대표적으로 한남)와 그 분위기가 여초 카페로 상당 부분 전이되면서 ‘넷페미니즘’에 대한 청년 남성들의 불만은 점점 확산되어갔다.<sup>13)</sup>

그리고 이렇게 넷상에서 청년 남녀들이 내전을 치르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페미니즘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특히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정치세력은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정치담론의 중심부에 올려놓았다. 그런 과정에서 박근혜 탄핵의 수혜자로 대통령에 오른 민주당 문재인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대통령’으로 자임했고 취임 이후 장관 등을 비롯한 요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의 국가기관에 여성할당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sup>14)</sup> 여기서 앞선 메갈리아 논쟁 등에서 쌓인 여성에 대한 청년 남성들의 불만은 여성할당제를 기점으로 폭발하게 된다. 그것은 청년 남성들의 목소리를 잘 정리한 중앙일보의 「‘이대남 현상’ 5분 총정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대남 현상’ 이해의 관문으로 할당제, 병역, 잠재적 성범죄자화 등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증명된다.<sup>15)</sup>

이러한 청년 남성들의 움직임은 분명 자연발생적인 면이 있지만 ‘이대남’이라는 용어가 정착되고 ‘이대남 현상’으로 확산된 과정은 분명 언론의 역할이 있었다. 언론의 ‘이대남’ 호명을 검증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로 ‘20 대 남성’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본 결과, 유의미하게 20 대 남성이 호명되기 시작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직전인 2018년 2월 시점이었다.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19/20대의 지지율 폭락이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 리서치뷰는 “남성과 19·20대, 학생, 경기·인천 및 강원·제주, 자영업, 국민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폭이 컸다”며 “최저임금 논란, 평창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논란, 암호화폐 논란 등에 따른 정부의 정책흔

13) 나무위키/위마드 항목 참조.

(<https://namu.wiki/w/%EC%9B%8C%EB%A7%88%EB%93%9C>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14) 「文 정부 성평등 정책 자평 “성별임금격차 해소 미흡, 젠더폭력 대응 노력“», 『서울신문』 2021년 11월 1일. (<https://www.seoul.co.kr/news/society/gender/2021/11/01/20211101500159>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15) 「보수·우경·마초화됐다고요? '이대남 현상' 5분 총정리 [이상언의 시사각각]», 『중앙일보』 2022년 1월 26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595> 검색일 : 6월 16일)

선과 언론환경이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sup>16)</sup>

이 기사에서는 20 대의 지지율 폭락과 20 대 남성을 연결시키고 있다. 2018 년 2 월 5 일 헤럴드경제 보도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에 대한 20 대 남성의 거부감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NYT는 외교 안보에 있어서 젊은 층이 보수적 태도를 취하게 된 원인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과 군대 의무 복무를 꼽았다. 2010 년 46 명의 희생자를 낳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에 대해 배타적 여론을 형성했으며, 북한을 주적으로 의무 복무하는 20 대 남성들일수록 강경한 대북관을 가지게 된다고 NYT는 분석했다. 이같은 젊은 층의 보수화는 최근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둘러싸고 불거진 회의론에서도 뒷받침된다는 분석이다.”고 언급하면서 20 대 남성이 정치적으로 보수화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17)</sup>

이후 ‘20 대 남성’을 호명하는 기사는 계속 재생산되었는데, 정확히 ‘이대남’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처음 사용된 것은 2019 년 1 월 5 일 조선일보 기사였다. 「이대남의 항변 “우리를 여성 혐오자라고 착각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이대남’ 현상을 젠더 문제, 불공정, 기존세대의 선민의식에 대한 불만과 결부지어 설명했다.<sup>18)</sup> 조선일보 기사 이후 이대남 관련 기획이 이어졌다. 세계일보는 1 월 13 일 20 대 남성 심층기획을 통해 이대남 현상을 집중조명했다. 20 대 남성 10 명의 인터뷰를 통해 (1) 기성세대가 ‘유리천장 업보’를 청년에 전가하고 있으며, (2) 종교적 병역거부 판결이 젠더 갈등을 불러왔고 (3) 당시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채용비리 등 공정하지 못한 과정·결과에 배신감을 느꼈으며 (4) 20 대 남성들을 폄하하는 일부 여권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그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고 설명했다.<sup>19)</sup> 한겨레신문에서도 20 대 남성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이대남 현상을 분석하는 기사를 내놓았고,<sup>20)</sup> 월간조선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586 운동권 비판을 위한 도구로 20 대 남성의 불만을 활용했다.<sup>21)</sup>

요컨대 2015 년 메갈리아의 등장으로 구체화되었던 젠더갈등과 그 과정에서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일련의 성평등 정책은 청년남성들에게 불공정으로 인식되었고, 그 결과 청년남성들은

16) 「리서치뷰」 문 대통령 지지율, 59%... 20대서 27%p 폭락, 『이데일리』 2018년 2월 4일.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056566619107240&mediaCodeNo=257> 검색일 : 6월 17일)

17) 「2018 평창」 NYT, “평창 올림픽서 남북 화합? 정부와 2030의 ‘동상이몽’”, 『헤럴드경제』 2018년 2월 15일.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205000661>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18) 「이대남의 항변 “우리를 여성 혐오자라고 착각하지 마라”」, 『조선일보』 2019년 1월 5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1532.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1532.html)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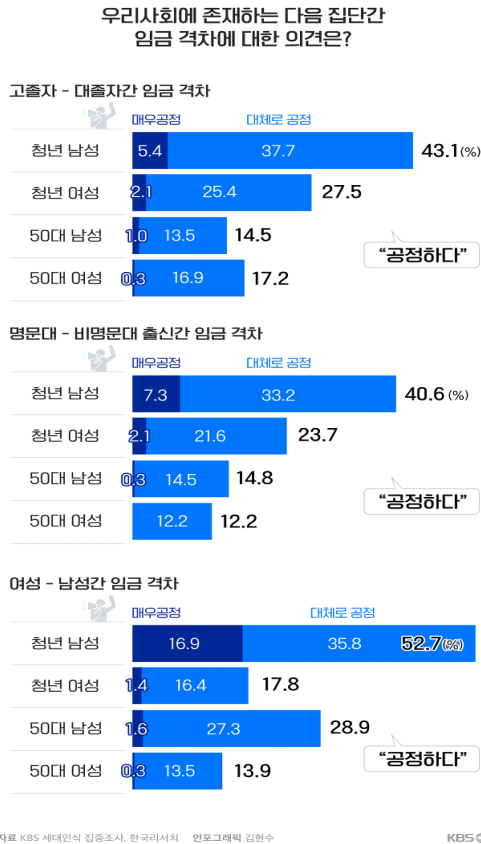
19) “여성우대 정책 오히려 역차별...정부에 등 돌린 '20대남' [심층기획]», 『세계일보』 2019년 1월 13일. (<https://www.segye.com/newsView/20190113001857>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20) 「영상+」 ‘20대 남성 반문재인·반페미니즘’ 이대남이 분석했다», 『한겨레신문』 2019년 2월 22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3175.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3175.html)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21) 「기획 文 정부 향한 20대 남성들의 ‘이유 있는 불만’ “기득권 누려놓고 이제 와 ‘平等’ 운운... ‘586 운동권’ 위선에 질렸다”」, 『월간조선 뉴스룸』 2019년 3월호.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903100028>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결집하게 되었다. 이 국면에서 언론 특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이 현상을 ‘이대남’이라는 개념으로 유포했던 것이다.

## 2. ‘공정’이라는 화두 : 나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그림 1] 「KBS 세대인식 집중조사③ '이대남' '이대녀'론의 실체」, 2021년 6월 24일.

‘이대남’들의 특징은 ‘공정’이라는 측면에 매우 민감하며, 그 ‘공정’은 때론 차별을 용인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간다는 점이다. 이것은 2021년에 실시된 KBS 세대인식 집중조사에서도 드러난다.<sup>22)</sup> 이 조사에서 고졸자-대졸자간 임금 격차, 명문대-비명문대 출신간 임금 격차, 여성-남성간 임금 격차에서 청년 남성 즉 ‘이대남’은 청년 여성, 50대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비율로 임금 격차를 인정하는, 즉 차별을 용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청년 남성 즉 ‘이대남’은 같은 세대 여성 다른세대들보다 압도적으로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에 집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정한 방식으로 선발된 능력있는 인물에 대한 우대는 정당하다는 논리에 대한 믿음도 유독 강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에의 집착은 결국 분배와 복지, 페미니즘 관점을 적극 수용한 집권 민주당의 각종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귀결되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술한 중앙일보 2022년 1월 26일 기사는 그 이유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내리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성별 할당제, 잠재적 성범죄자화, 병역 이 셋을 ‘이대남 현상’ 이해의 관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먼저 국가 공무원 성별 할당제에서 여성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로스쿨 의대, 약대, 한의대 입학에서 여대에 기반을 둔 여성이 유리하다고 비판한다. 다음으로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 시각에 대한 사례로 2020년 만들어진 리셋이라는 단체의 남

22) 「KBS 세대인식 집중조사③ '이대남' '이대녀'론의 실체」, 2021년 6월 24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217567>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초 사이트 모니터링 활동을 들고 있다. 해당 단체는 남초사이트를 범죄가 일상화된 곳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녀 공동 병역 이행을 주장하는 이대남들의 입장을 언급하고 있다.<sup>23)</sup>

### 3. '이대남'의 피해자 서사

'이대남'의 안티 페미니즘과 공정 담론은 기존의 지배계급(주로 진보성향 중장년 남성)과 동맹한 페미니스트 여성그룹 사이에서 피해받은 청년남성이라는 피해자 서사로 귀결되었다. 이런 '이대남'들의 박탈감은 에펠타코리아의 2019년 게시물에서도 드러난다.<sup>24)</sup>



[그림 2] 2019 대한민국 계급도, 2019년 9월 28일

사실 위 도식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이 남성보다 상위에 있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남녀 임금격차는 현저하고 가난한 여성이 훨

23) 『중앙일보』, 앞의 기사, 2022년 1월 26일.

24) <에펠타코리아> 유머/정보 게시판/2019 대한민국 계급도 ; <https://www.fmkorea.com/2227990266>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썬 더 비참한 것은 여러 통계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은 OECD 29 개국 중 '유리천장 지수'<sup>25)</sup>가 최하위로 11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sup>26)</sup> 하지만 저 계급도는 '이대남'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되며 급기야 '설거지론'으로까지 연결되었다. '설거지론'이란 무엇인가? '설거지론'은 한국의 다음 백과(에듀일 시사상식)에도 등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거지론이란 열심히 노력해 좋은 직장에 다니는 순진한 남성이 젊은 시절 문란한 연애를 했던 여성과 결혼해 월급을 통째로 바치며 설거지로 대표되는 집안일까지 한다는 상황을 비유한 말로, 여성혐오적 시각을 담고 있다. 설거지론에서 파생된 '퐁퐁남'은 아내가 전업주부임에도 퇴근 후 설거지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남성에게 대해 세제 이름인 퐁퐁을 붙인 것이다.(...) 이들은 가족 부양에 가사·육아 부담까지 하면서 예전만큼 대접받지 못하는 유부남 선배들을 보며 젊은 남성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sup>27)</sup>

요컨대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 전업주부를 물심 양면으로 뒷받침하는 행위를 '설거지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설거지론'은 유능하고 순진한 남성 대 무능하고 문란한 여성의 대립구도를 만들고 남성을 피해자로 위치시키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얼핏 실소가 나오는 이 구도는 '이대남'들에게는 보편적 서사로 자리잡았다. 2024년 6월 17일 기준 에펴코리아에서 퐁퐁남을 검색하면 총 2,783개의 게시물이 검색되고, 설거지론을 검색하면 4,975개가 검색되기 때문이다.<sup>28)</sup> 디시인사이드 마이너 갤러리에도 설거지론 갤러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렇듯 '이대남'의 한국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피해의식은 '대한민국 계급도'의 최하단에 청년 남성을 위치시키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 결혼과 연애에서도 '퐁퐁남'이라는 신조어를 통해 자신들의 현실을 비관했는데, 이것은 '이대남' 피해자 서사의 궁극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5)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를 수치화한 지수로 남녀 고등교육 이수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남녀 임금 격차, 관리자 중 여성 비율, 임금 대비 육아비용 등 5개 항목이 조사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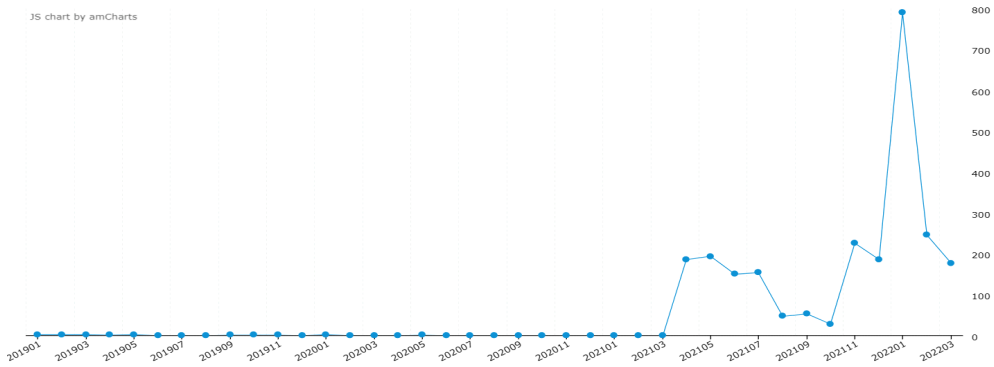
26) 「韓, OECD 29개국 중 '유리천장 지수' 최하위...11년 연속 꼴찌」, 『뉴스1』, 2023년 3월 8일.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308/118232049/1>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27) 다음백과(에듀일 시사상식/설거지론).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01XXX2112081>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28) 「에펴코리아」(<https://www.fmkorea.com> 검색일 : 2024년 6월 17일).

## II. ‘이대남’ 담론의 효과와 정치적 동원

피해자 서사로 귀결된 ‘이대남’의 피해의식과 불만은 정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의 하태경과 이준석 등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이대남’ 현상에 관심을 가졌다.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당시 여론지형을 짚어 보자.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의 ‘연관어 분석’ 서비스를 활용해보면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온다. 전술했듯이 ‘이대남’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2019년이므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대남’ 단어 등장 횟수는 2019년 12회, 2020년 3회에서 2021년 1,247회로 급속히 증가했다가 2022년에는 2,385회로 절정에 이른다. 2023년에는 307회로 감소하는 양상이다.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sup>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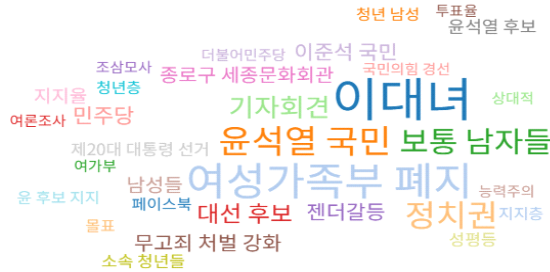


「그림 3」 '이대남' 키워드 트렌드(2019.1~2024.1)

이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이대남 용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2021년 말과 2022년 초 시점인데, 이것은 젠더 이슈가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었던 정치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이대남’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 중 무려 72.5%가 오세훈 후보에게 몰표를 줬다. 이후 6월에 실시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청년 남성들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대선 역시 청년 남성의 과반 이상이 지지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20대 남성의 58.7%, 30대 남성의 52.8%의 지지를 받았다.<sup>30)</sup> 이런 정치권과 ‘이대남’ 현상의 관련성은 2019년부터 선거가 끝나는 시점은 2022년 3월 9일까지의 연관어 분석으로 더 잘 드러난다.<sup>31)</sup>

29) 빅카인즈 뉴스검색·키워드 트렌드(<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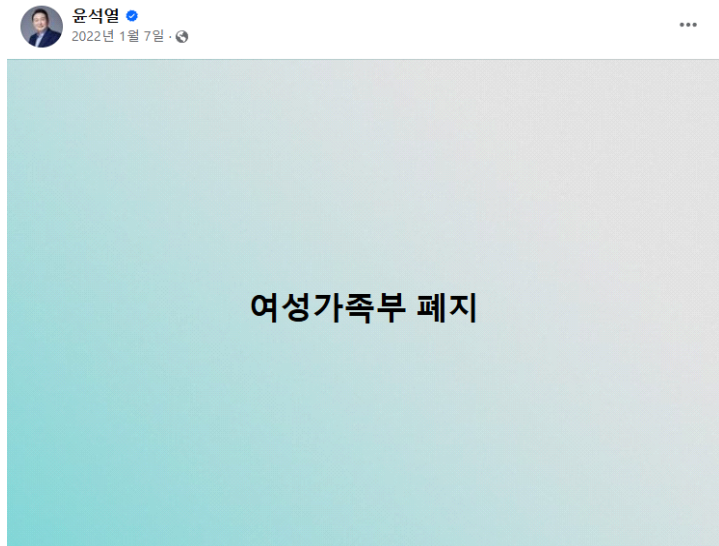
30) 「누가 청년을 대변할까?」[뉴스레터 점선면], 『경향신문』 2023년 12월 22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220842001>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그림 4] ‘이대남’ 연관어 분석(2019.1~2022.3.9)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2021년 말부터 시작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대남’ 들은 적대자인 ‘이대녀’에 대한 증오를 표출했고 그것은 여성가족부 폐지 여론 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난 20대 대선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실제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은 이재명과 시종 박빙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연이은 망언과 당대표 이준석과의 갈등으로 인해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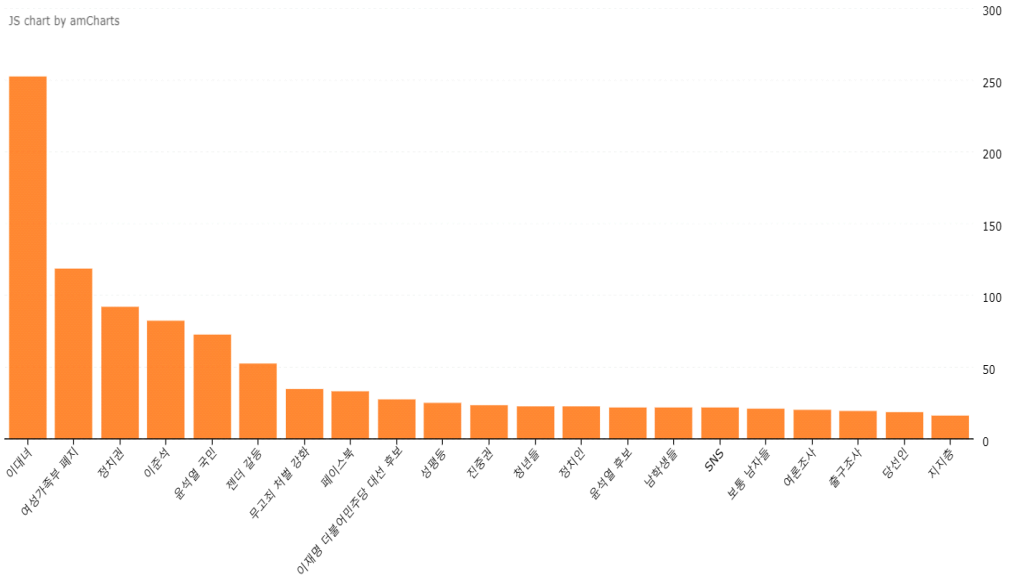
12월 말에는 28%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며 당시 38.5%를 기록했던 이재명 후보에게 큰 격차로 뒤지게 된다. 그리고 이 격차는 2022년 1월 초까지도 유지되었다. 이 시점에서 윤석열은 ‘이대남’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행동을 한다.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었다. 그 방식도 매우 독특했다. 그는 2022년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게시한 것이다.



[그림 5] 윤석열 페이스북, 2022년 1월 7일

31) 빅카인즈 뉴스검색·연관어분석(<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이 간명하면서도 선동적인 문구는 선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저 게시물이 업로드 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2022년 1월 11~12일 MBC-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에서 38.8%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32.8%)를 앞섰다.<sup>32)</sup> 그리고 이국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준석이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준석은 ‘이대남’ 이 선택한 정치적 대리인이었고 실제로 뉴스검색 기간을 2019년부터 2024년까지로 넓힐 경우 이준석의 빈도는 더 늘어난다.



[그림 6] ‘이대남’ 연관어 분석 (2019.1~2024.1)

그래프<sup>33)</sup>에서 보이듯이 이준석은 단일 인물 중에서 대통령 윤석열과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보다도 수치가 높다. 윤석열의 비중은 이준석의 전략을 채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대남’ 담론이 등장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정치인 중 ‘이대남’ 과 가장 밀접한 정치인은 이준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준석은 ‘이대남’ 이 집착하는 가치인 ‘공정’ 을 자신의 정치적 의제로 내세웠을 뿐 아니라 ‘페미니즘’ 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용기 있는’ 정치인이었다. 그의 메시지를 살펴보자.

32) [주간 데판] 젠더의 정치학?.. 윤 오르고 안 꺾이나 [엄경영의 정치읽기], 『오마이뉴스』 2022년 1월 14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2872](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2872)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33) 빅카인즈 뉴스검색 · 분석(<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서로 비슷한 환경이라 위화감 같은 것이 없었다. 오직 공부로 서열이 매겨졌다.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었다. -『공정한 경쟁』, 2019-

공정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첫 단추로 (여성)할당제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민생이 급한 상황에서 최고 실력자를 기용하지 않고 수치적 성평등에 집착했으니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2021년 4월 발언-

여가부가 예산을 받아 활동했는데도 10년간 젠더갈등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을 보면, 지금 형태로 계속 존재해야 할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 2021년 7월 발언-<sup>34)</sup>

그의 이런 발언들은 문재인 정부의 ‘인국공 사태’와 ‘조국 사태’를 불공정으로 정의한 ‘이대남’들의 공감을 이끌어냈고,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은 ‘용기와 소신’으로 평가되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디시인사이드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증명된다.

정확히는 이준석이 이재명을 이긴거지 ㅋㅋ 이미 그 당시 여조(여론조사 : 필자) 기록이 모든걸 증명하는데 정권교체 열망이 60%가 넘는 상황에서 시작했는데 윤석열이 1일 1망언으로 지지율 계속 꼬라박자 이준석이 실패한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겠다며 도망갔다가 거의 이재명 당선 확정 분위기 까지 갔었음 이게 2021년12월~2022년 1월초임 그러다가 이준석이 마음 돌려서 일단 이기게 해준다하고 와서 겨우겨우 진땀승 만들어줬더니 윤석열이 이겼다도르 ㅋㅋ<sup>35)</sup>

이렇듯 청년남성들, 즉 ‘이대남’들은 20대 대선의 핵심 아젠다를 젠더 이슈로 보았고, 대선의 승리는 ‘이대남’이 그들의 대변자 이준석을 통해 쟁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준석이 청년남성들의 상징으로 떠오르자 보수언론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특히 조선일보는 국민의 힘 당대표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5월 29일에 「용기있는 정치인? 편 가르느 트럼프?... 이준석의 이유 있는 돌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의 인기 요인을 분석하면서 이준석 현상을 사실상 견인하고 있었다.<sup>36)</sup>

2018년 전후 하태경과 함께 남성 커뮤니티의 여론을 탐색하여 젠더 갈등에 올라탔던 그는 2021년을 기점으로 ‘이대남’의 정치적 대리인으로까지 등극했다. 하버드대학 졸업이라는

34) 『경향신문』, 앞의 기사, 2023년 12월 22일.

35) 디시인사이드 마이너갤러리/새로운보수당 갤러리(2023.10.23.).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newconservativeparty&no=4008658>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36) 「용기있는 정치인? 편 가르느 트럼프... 이준석의 이유 있는 돌풍」, 『조선일보』 2021년 5월 30일.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1/05/29/2IQXFYXWUNBLJHC4A2SBBMRTFQ/>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그의 화려한 이력은 ‘능력있는 공정의 화신’이라는 이미지까지 덧씌우면서 더욱 ‘이대남’의 열광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 Ⅲ. 한국 청년세대의 현실과 공정 담론의 재구성

전술한 바와 같이 ‘이대남’ 현상의 원인에는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이 도사리고 있다. 성별할당제와 병역,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논란 등도 모두 ‘공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불평등’한 것은 참지만 ‘불공정’한 것은 참을 수 없는 한국식 능력주의의 현상이다.<sup>37)</sup>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공정이라는 가치에 극단적으로 집착하게 된 것은 희망을 찾기 힘든 청년세대의 고단한 현실이 있다.

먼저 청년세대의 현실을 살펴보자. 통계청이 2023년 12월 6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 행정통계’에서 국내 일자리는 2022년 대비 87만 개 등장했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44만 개가 60세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였다. 이에 비해 30대는 5만 개, 20대는 1만 개 상승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2023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조사대상 3,224명)’에서도 졸업생 예상 취업률은 49.7%였다.<sup>38)</sup> 그리고 일자리의 질도 더 나빠졌다. 2023년 3월 전년 동월 대비 음식점업 취업자는 9만 명이나 증가한데 반해, 안정적인 제조업 취업자는 5만 명 감소했다. 그리고 지난 5년 간 대학생이 아닌 청년(25세~34세)의 음식점 취업자 약 2만 명이 증가했다. 첫 취업까지 걸린 시간도 3년 이상 소요된 경우는 약 36만 명, 2년 이상 소요된 것은 약 63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청년 우울증 환자는 31만 명, 4년 새 약 2배가 증가했으며, 고립·은둔 청년은 약 51만 명으로 추산된다.<sup>39)</sup>

그리고 취업을 했다고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압도적인 근무환경 차이가 있다. 통계청 조사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3년 6~8월 비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195만 7000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임금인 362만 3000원의 절반에 불과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166만 6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노동시장 격차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중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다.<sup>40)</sup> 일자리 특히 정규직 일자리에 진입하기가 힘든 현실에서 부동산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폭등한 현실은 더욱 청년층의 의지를 꺾기에 충분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

37) 박권일, 2021, 『한국의 능력주의』, 이데아, 7-8쪽.

38) 「일자리 늘었다지만 ‘취업·이직 모두 어렵다’…사막한 2030 취업시장」, 『헤럴드경제』, 2023년 12월 11일. (<https://mbiz.heraldcorp.com/view.php?ud=20231211000178>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39) 「'실패자 낙인' 찍힌 청년이 늘고 있다...떡구름 낀 대한민국의 미래」, 『스브스프리미엄』, 2023년 12월 22일. (<https://premium.sbs.co.kr/article/-2GC4MPUrQh>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40) 「정규직 362만원·비정규직 195만원... 임금차 167만원 ‘역대최대」, 『국민일보』, 2023년 10월 25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6890>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원을 넘었는데,<sup>41)</sup> 2021년 기준으로 25~29세 중위소득이 월급 250만원이며, 30~34세는 월급이 300만원인을 감안하면, 청년층들에게 서울지역 아파트 구매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사회는 점차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견 통계상으로도 드러난다. 예컨대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sup>42)</sup> 그리고 2023년 11월 기준으로 19세 이상 성인들에게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해 낮다고 대답한 사람은 무려 54%에 달해 절반을 상회했다. 더 나아가 출산과 결혼 등에 부정적인 20대 청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20대 남성 기준 41.9%, 20대 여성은 27.5%였다. 2012년에 20대 남성 67.0%, 20대 여성 48.6%였음을 감안하면 하락 폭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030세대 44%는 결혼해도 무자녀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공동체가 붕괴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붕괴 현상은 각자도생의 분위기를 더 확산시켰다. 내집 마련과 결혼, 출산 같은 전형적인 경로의 공동체 재생산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혹은 ‘탈락’의 두려움에 떠는 청년들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같은 투기성 자산에 투자하거나, 혹은 기성세대와 동세대 이성 즉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점점 강해져서 염세적인 사고가 팽배해지면서 청년층들은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보편적으로 합의한 가치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공정’은 한국 사회, 특히 ‘이대남’을 비롯한 청년세대가 기필코 지켜야 하는 가치로 대두했다. ‘이대남’이 대두한 계기도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 결성 당시의 공정성 시비,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사원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공정성 시비, ‘정유라 입시비리’, ‘조국 사태’ 등에 나타난 특권층의 불공정 행위 등이었음을 감안하면 청년층, 특히 청년남성들은 ‘공정’ 문제에 더욱 민감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여론을 잘 알았기 때문인지 문재인 전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은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 가치에 집중했던 청년층에게 성토의 대상이 되었다. 예컨대 2017년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정확히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자 사내게시판에는 비난과 혐오발언이 올라왔다. 차량검수 업무직 유모씨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격 능력도 없는 사람, 폐급이라고 멸시하고 쓰레기, 삼류양아치 등 소통의 창에서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비방하는 것을 넘어 증오하는 글로 힘들었다”고 고통을 토로했으며, 스크린도어(PSD) 업무직 임모씨는 “소통게시판에 본인에 대해 과거 경력 및 신상부터, 학력, 자격증 유무 등 어떻게 알았는지 모를 신상정보가 무

41)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2억원 넘어...추가 상승은 글썄」, 『뉴시스』 2023년 11월 28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1127\\_0002536804](https://www.newsis.com/view/NISX20231127_0002536804)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42) 「친절한 경제」 “계층 상승 불가능” 한국은 지금 각자도생, 『SBS 모닝와이드』 2019년 11월 26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38252](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38252)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단으로 올라왔다”고 이 상황에 대한 진상조사를 서울시에 요구했다.<sup>43)</sup> 그리고 ‘이대남’들의 분노가 집중되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도 마찬가지로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것을 언론은 ‘인국공 사태’로 명명했고 ‘인국공’은 ‘불공정’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더하여 이 공정과 짝을 이루는 개념인 ‘능력주의(meritocracy)’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의 주창자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의 사회적 확산은 ‘시험 성적’(Merit)에 따라 계층이 나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성적에 따라 생기는 보상과 불평등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주장한다.<sup>44)</sup> 박권일은 마이클 영의 논의를 받아들여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저작을 펴냈다. 이 책의 핵심 논지는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한국, 한국인’이다. 그것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평등에 찬성한 비율은 23.5%였고, 불평등에 찬성한 비율은 58.7%” (2010~2014년 조사, 중국의 경우 평등 52.7%/불평등 25.8%, 독일의 경우 평등 57.7%/불평등 14.6%)였으며, 최근 조사인 7차 자료(2017~2020년)에서는 “한국인의 64.8%가 불평등에 찬성했고, 12.4%만 평등에 찬성”했다. 저자 박권일은 이 결과를 보고 “불평등에 대한 일관되고 또렷한, 선호, 그 ‘격차의 열정’에서 한국인의 ‘진심’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sup>45)</sup>

이런 ‘공정’과 ‘능력주의’ 담론의 한계는 뚜렷하다. 역사와 사회를 구조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공정한 경쟁’이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재력과 학력 등 문화자본, 각 개인의 두뇌와 건강 및 노력 등이 결합되어야 한다. 아울러 만약 거의 유사한 조건 하에서 ‘공정’하게 경쟁했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를 경쟁에 이긴 사람이 독점할 필요는 없다.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홀대할 필요는 더욱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공정’ 담론을 비롯한 ‘이대남’ 관련 논의들은 수도권 엘리트 남성들이 주도했다는 측면에서 문제적이다. 전술했던 설거지론은 ‘스펙’을 갖춘 엘리트 남성의 ‘피해 서사’적 성격이 강했고 조국 사태 당시 가장 활발하게 저항했던 것이 수도권의 몇몇 유명 대학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혐의는 더 짙어보인다. 이것은 ‘이대남’ 담론 또한 계급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이런 지식인 엘리트 위주의 청년 담론 흐름에 대해 정면으로 지적한 당사자는 공장노동자 출신 청년 기자 천현우였다. 2023년 12월 7일 고 김용균(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서 사망) 노동자의 사망과 관련된 재판에서 회사측 대표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그날 그는 자신의 SNS에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겼다. 다소 길지만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43)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쓰레기라 조롱”..정규직화과정 인권무시」, 『뉴스시스』 2017년 12월 7일.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71207\\_0000169703#\\_PA](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71207_0000169703#_PA)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44) 마이클 영 지음, 유상은 역, 2020.

45) 박권일, 2021, 176-178쪽.

약자에겐 언어가 없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대한민국에 ‘일하다 죽는 설움’을 각인시켰다. 국민들의 공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발의로 이어졌다. 오늘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前 사장이 무죄 확정을 받았다. 소식을 듣는 순간 스친 감정은 분노보단 익숙한 무기력감이었다. (...) 정규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 글로 남아있지 않지만 다들 느낌으로 안다. 회사에 개처럼 기지 않으면, 성실한 노동자를 분하지 않으면, 결코 정규직 명찰을 달 수 없음을 안다. 그렇기에 대다수 산재 사망자들은 하청 노동자였고, 대부분이 성실하게 일하다가 죽었다. 故 김용균 씨 말고도 구의역 김군의 죽음 속엔 분명 이런 사정도 섞여 있었으리라. 원청 노동자건 하청 노동자건 동일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공정한 일터다. 그러므로 하청 노동자에겐 불공정이 일상이다. 하지만 이 불공정함을 세상은 애써 무시한다.

(...) 인국공 사태는 이 야바위의 절정이었다. 절대적 룰을 공채로 설정한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칙이라고 정했다. 일단 한 번 왜곡된 언어는 너무나 간단히 비약한다. 공채를 위한 스펙 품앗이는 모조리 성실함으로 포장된다. 절대적 룰을 따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반칙꾼이고 게으른 인간 취급을 받는다. 룰에 따르기 위한 노력을 일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하청 노동자들에 비해, 취업을 유예할 수 있기에 상대적 강자인 취업 준비생들은, 공정이란 언어를 자기들의 색으로 칠해버렸다. 이러한 야바위가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강자의 언어엔 힘이 있기 때문이었다.

(...) 무슨 말을 할까. 현실이 늘 이래왔었는데, 뭘 기대할 수 있을까. 강자들의 모호한 언어에 약자들은 구구절절한 사연과 몇 없는 수단으로 부딪치다 판판이 깨진다. 억울한 사정을 죽음으로 증명해야만 세상은 조금의 관심을 가져준다. 그마저 대부분 지속하지 못한 채 흩어진다. 나는 이 현실이, 눈물 나도록 억울하고 슬프다.<sup>46)</sup>

이 글은 ‘공정’이라는 기표가 명문대학을 나온 수도권 중산층의 맥락에서만 해석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요컨대 엘리트들의 노력은 공정함으로 포장되고 하층계급 노동자의 성실함은 ‘반칙’으로 매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천현우의 비판은 ‘이대남’ 내부의 계급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으며,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공정 담론이 엘리트 청년 남성 계층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도 상기시켜주고 있다. 공정 담론을 재구성하려고 할 때,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46) 천현우 페이스북 게시물 2023년 12월 7일.

(<https://www.facebook.com/photo/?fbid=5649633468495248&set=a.350339805091334> 검색일 : 2024년 6월 16일) 이 게시글을 논문에 활용하도록 허락해주신 천현우 님께 감사드립니다.

## IV. 결론

이 글에서는 ‘이대남’ 현상을 통해 한국 청년세대의 현실에 착목하고자 했다.

먼저 청년남성들이 결집하고 ‘이대남’이라는 개념으로 호명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시작은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의 ‘공정성’ 문제였고, 갈등의 폭발은 메갈리아로 대표되는 ‘넷페미니즘’ 흐름과 성별할당제였다. 공정성과 젠더 이슈는 이대남을 결집시키는 화두였던 것이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언론은 적극 호명했고, 그 결과 ‘이대남’은 고유명사가 되었다. 정치권에서 이 흐름을 포착한 것은 청년 정치인 이준석이었고, ‘이대남’들은 이준석을 적극 지지하여 그가 여당 대표가 되는데 크게 공헌했다. 그 흐름은 대선까지 이어지며 ‘이대남’은 정치적 주체로 대두했다. 하지만 ‘이대남’들은 ‘설거지론’으로 대표되는 피해서사에 매몰되어,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반여성적·반인권적 공약에 열광했다. 그리고 ‘공정’ 담론에 몰두했지만,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한국 청년세대의 현실은 비관적으로 보인다. ‘이대남’ 현상은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이 만연되는 현상, 그로 인해 사회적 연대가 붕괴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어쩌면 파국의 서사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이 현실이 청년세대들에게만 해당되는 점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이대남’의 특징으로 본문에서 열거했던 공정과 능력주의 등의 가치는 다수의 한국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대남’ 현상은 한국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4.05.15, 심사개시일: 2024.06.03, 게재확정일: 2024.06.10.]

【참고문헌】

「디시인사이드 마이너갤러리」(<https://gall.dcinside.com/mgallery>)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에펠키코리아」(<https://www.fmkorea.com>)

『SBS 모닝와이드』  
 『경향신문』  
 『국민일보』  
 『뉴스1』  
 『뉴시스』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스브스프리미엄』  
 『오마이뉴스』  
 『월간조선』  
 『이데일리』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헤럴드경제』

김내훈, 2021, 「‘이대남’의 포퓰리즘과 그 이면」, 『문화과학』 108.  
 김은이·송민호, 2022,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20대의 이대남 인식과 정책 평가가 투표 참여에 미친 영향 :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8-3.  
 마이클 영 지음, 유상은 역, 2020, 『능력주의-2034년,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엘리트 계급의 세습 이야기』, 이매진.  
 박가분, 『혐오의 미러링』, 바다출판사, 2016  
 박권일, 2021, 『한국의 능력주의』, 이데아.  
 여성민, 2022, 「‘이대남 현상’의 ‘정치적’ 연구-한나 아렌트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오다솔·유홍식, 2023, 「보수·진보 정치권의 ‘이대남’ 정치화에 대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 분석」, 『한국소통학보』 22-4.  
 오다솔·이신행, 2026, 「20대 젠더 갈등에 대한 뉴스 의제 및 프레임 분석 : 토플 모델링과 텍스트 분류 알고리즘을 이용한 2022년 선거 국면에서의 ‘이대남·이대녀’ 현상에 대한 언론보도 탐색」, 『한국언론학보』 67-3.  
 이선옥, 2022, 『왜 이대남은 동네북이 되었나-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대한민국 이대남 보고서』, 담담사무소.

**【Abstract】**

**Political mobilization of South Korea's Younger Generations and  
the reconfiguration of fairness discourse\*.**

**-Centering on the phenomenon of males in their 20s**

Kim, Hunjoo  
(Hanbat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phenomenon of males in their 20s in Korea(“Yi Dae Nam” phenomenon), which has emerged as a political issue since 2019, and to diagnose how it relates to the reality of Korean society.

First, we analyzed the context in which the phenomenon of males in their 20s in Korea has been formed. It was first formed in response to the discussion over fairness of the united ice hockey team between the two Koreas, as well as the backlash against 'net feminism' and criticism of the gender quota system. Conservative media and conservative politicians, led by Chosun Ilbo, actively responded to the voices of males in their 20s, and eventually led to the pledge to abolish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However, such pledge was against human rights, opposite from the global trend, and the 'fairness' emphasized by Korean males in their 20s does not contain the willingness to improve inequality.

It is worth pointing out that the values that Korean males in their 20s pursue such as fairness and meritocracy are shared by many Koreans in general. In that sense, the phenomenon of males in their 20s in Korea can be seen as a litmus paper of Korean society.

**Keywords :** Younger Generations, males in their 20s, feminism, fairness, meritocracy